

#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 삶과 미래가 달라진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바퀴의 이동

존 로산트·스티븐 베이커 지음, 이진원 옮김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빌리티의 목표는 페이스북처럼 응답성이 좋은 공공이나 민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 시스템은 데이터의 흐름을 페이스북처럼 사용자가 수익성이 높은 일련의 클릭을 하게끔 유도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중에서)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달라진다. 무엇을 입고 먹느냐보다 무엇을 타느냐는 시간, 돈과 더 복잡하게 연계된다. ‘탈것’의 변화는 삶의 방식, 존재 방식, 사유 방식을 바꿀 것이므로. 완전한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초고속 진공튜브 캡슐열차 등은 더 이상 상상 속 산물이 아니다.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다. 가히 모빌리티

혁명이랄 수 있다. 최첨단 기술은 이동수단을 바꾸었다. 수단이 바뀌면 삶의 양상도 역동적으로 바뀌기 마련이다. 현재 가장 상징적인 자동차 도시는 로스앤젤레스다. 모빌리티 기술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도로는 여전히 막히지만 도시 공간 배치, 지하철 노선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기자 공유 버스 제공 등 교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간의 이동은 다양한 분야와 직결된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도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형과 교통 시스템까지 포함해 미래의 존재방식까지도 연계된다. 현실이 된 모빌리티 혁명을 다룬 책 ‘바퀴의 이동’은 제목부터 시선을 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뿐 아니라 ‘이동 생태계’의 미래까지도 아우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비영리 네트워크인 뉴시티 재

단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존 로산트와 ‘왓슨: 인간의 사고를 시작하다’의 작가 스티븐 베이커가 공동 집필했다. 지난 1세기 이동수단은 자동차와 트럭이 주류였다. 그러나 향후 10년에 걸쳐 ‘탈것’의 이동 방식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전기자전거에서부터 자율주행에 이르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빌리티는 에너지, 자동차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와 맞물려 현실적인 질문과 맞닥뜨린다. 과연 상공을 나는 에어택시가 추락한다면? 자율주행차는 믿고 맡겨도 괜찮을까? 완전한 자율주행 이전의 ‘반자율주행’ 시장을 겨냥한 이들도 나왔다.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설립자인 로버트 ‘RJ’ 스카린지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 SUV와 픽업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주행하며 해상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진을 찍거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탈것’을 둘러싼 경쟁은 땅과 지하, 하늘에서도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100개 이상의 기업이 전기 비행선과 헬리콥터, 초고속 지하철을 개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델러스, 두바이 등에서는 로보트 비행, 고속 지하터널을 계획하거나 이미 건설에 돌입했다.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모빌리티 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선택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싶은가? 더 빠르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공공성, 안전성, 효율성, 경쟁력, 환경 등 사회적 관점에서의 영향도 숙고해야 한다. 저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소소의책·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겨울이 지나간 세계

아사다 지로 지음·이선희 옮김

올해 65세인 다케와키 마사와즈는 도쿄 단독주택에 머문다. 대기업 계열사 임원까지 지낸 그는 얼마 전 정년퇴직 송년회를 마치고 돌아오다 뇌출혈로 쓰러진다. 의식을 잃은 채 집중치료실에 3일간 누워있던 그는 갑자기 포근하고 따뜻한 행복감에 사로잡혀 눈을 뜬다. ‘철도원’의 작가, ‘탁월한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아사다 지로의 장편 ‘겨울이 지나간 세계’는 그렇게 시작한다. 그동안 인간의 상처를 따뜻한 문장으로 그려낸 작가의 야심작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연재돼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병원에서 눈을 뜬 다케와키를 찾아온 이는 정체불명의 여인. 자신을 ‘마담 네즈’라고 소개하는 정체불명의 여인은 다케와키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온다. 다케와키는 밤 풍경을 바라보며 고급스러운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얼마 후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 시즈카와 한여름의 바닷가를 거닐기도 한다. 이상한 일은 계속된다. 다케와키는 같은 처지의 옆 침대 환자 가정과 같이 목욕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포장마차 안에서 정종을 마시는 등 꿈도 망상도 아닌 이세계(異世界)를 경험한다. 아사다 지로와 소설의 주인공 다케와키는 많은 부분이 닮았다. 1951년 태어났으며 고도 경제 성장기에 자랐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었다. 작가는 이번 소설을 통해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라고 헌사와 위로를 건넨다. 작가는 주인공을 ‘같은 교실에, 같은 자장에, 같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 중에 있었던 인물’로 그리고자 했다. 타인에 대한 관대한 시선을 애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부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 줄도 좋다, 우리 희곡

정수진 지음

김우진, 유지진, 함세덕, 오영진, 이근삼, 노경식, 윤대성, 이현화, 이강백, 김민기... 이들은 한국 근현대 희곡의 대표 작가들이다. 한국 희곡은 3·1운동을 겪으면서 근대적으로 발전했다. 한국 최초 근대 희곡은 이광수의 ‘규환’ (1917)이다. 이후 한국 희곡은 앞서 언급한 가라성 같은 작가들을 배출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연극의 명장면을 희곡 대사 한 줄로 담아낸 ‘한 줄도 좋다, 우리 희곡’은 근현대 희곡 대표작 30편을 담았다. 연극의 삶을 실천하며 대학에서 희곡을 연구하는 정수진 씨가 저자다. 책에는 김우진의 ‘난파’에서 김민기의 ‘공장의 불빛’까지 당대 사회와 내면의 풍경을 포착한 작품이 등장한다. 희곡은 대략 몇 개의 주제로 묶일 수 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거친 마음을 다룬 작품으로는 ‘규환’ (이광수), ‘김영일의 사’ (조명희), ‘난파’ (김우진), ‘부음’ (김영팔), ‘토막’ (유지진)을 들 수 있다.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에는 ‘두 애인’ (김명순), ‘어머니의 힘’ (이서구), ‘해연’ (함세덕) 등을 만난다. 세상 속에서 빼앗고 빼앗기는 실상을 그린 작품으로는 ‘박첨지’ (유진오), ‘원고지’ (이근삼) 등을 들 수 있다. ‘박첨지’에 나오는 “쓸 만한 전답은 신작로 되고 문전옥토는 정거장이 된다”는 뜻 모를 노래는 이편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이 밖에 망각이라는 유토피아를 다룬 희곡으로는 ‘꽃잎을 먹고 사는 기관차’ (임희재), ‘봄날’ (이강백)이 있으며 전통에게 길을 묻는 주제를 담은 작품은 ‘노비문서’ (윤대성),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최인훈)가 있다. 시대를 고민하는 인간을 그린 것은 ‘장산꽃매’ (황석영), ‘공장의 불빛’ (김민기)이 대표적이다. <테오리아·1만2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식탁 위의 중국사

장정 지음·장은주 옮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중국을 만나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을 것 같지만 매운 맛을 내는 고추는 18세기 초가 되어서야 중국에 퍼졌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마라탕’ 역시 비교적 최근 음식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만두나 면에 대해 몰랐으며, 쌀이 아닌 콩이 서민의 주식이었다. 현대 중국인은 생선회를 먹지 않지만 춘추시대에는 생식이 일반적이어서 궁자도 육회를 즐겨 먹었다. 이처럼 식생활을 보면 그 나라의 진짜 역사와 문화가 보인다. 복식과 의례는 꾸며낼 수 있지만, 음식은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스며들기 때문이다. ‘음식’이라는 키워드로 5000년 중국의 역사 전체를 살핀 ‘식탁 위의 중국사’가 최근 출간됐다. 비교문화사를 공부하고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장정은 ‘사랑의 중국 문명사’로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으로 산토리 학예상을 받았다. 이밖에 ‘미녀란 무엇인가’, ‘하늘을 비상하는 심벌들’을 펴냈다. 책은 춘추전국시대 ‘궁자의 식탁’으로 시작해 한대 ‘면의 연륜’, 위진·남북조시대 ‘식탁의 비행’, 수당시대 ‘개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송대 ‘양고기 대 돼지고기’, 송원시대 ‘젓가락이여! 너마저’, 명청시대 ‘아, 상어지느러미’ 등을 다룬다. 저자는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과 달리 중국은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 서역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뒤섞였다”며 “중국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다양한 민족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음식 이야기를 통해 진짜 중국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현대저서·1만2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화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 학부 추가모집

▶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문사회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교육상담학 전공)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영일정

·원서접수: 2021. 2. 22(월)~24(수) ·전 형 일: 2021. 2. 25(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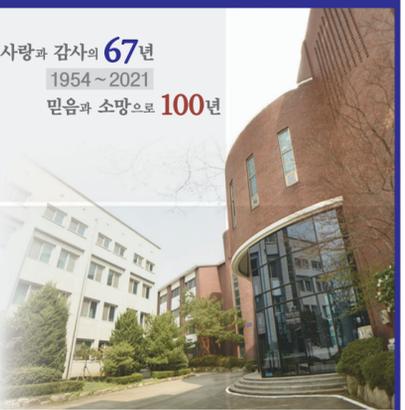
## 대학원 추가모집

▶ 입학문의 대학원 605-1115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상담심리치료학과(D.C.S.)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영일정 ·원서접수: 2021. 2. 15(월)~19(금)  
·전 형 일: 2021. 2. 22(월)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www.kwangshin.ac.kr

